서일학보 The Seoil University Press

Tuesday, November 1, 2022 **No.297**

• **발행인** 김영철 • **주간** 고미숙 • **편집장** 이도해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http://www.seoil.ac.kr/hakbo

제48회 용마대동제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간 제48회 용마대동제를 열었다. 학생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즐기지 못한 축제를 오랜만에 맞이해 즐겼다. 대동제는 학과 부스, 무대, 푸드 트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이벤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대동제는 총학생회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준비했다고 한다. 비대위의 말에 따르면 이번 8월에 조직이 되어 촉박하게 준비했지만, 열심히 구성했다고 한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맞추려고 했다고 한다.



▲ 무대를 즐기는 학생들

대동제 이튿날인 10월 6일에는 각종 동아리 공연과 찬조 공연이 있었다. 힙합 동아리 '더모스트'는 첫 곡 Two harsh crals를 포함해 12곡의 무대를 했다. 특히 첫 곡이 특별한 이유는 밴드부 '막내동이'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막내동이'는 비밀번호 486을 포함해 6곡을 공연했다. 댄스부 '센세이션'은 르세라핌의 피어리스를 포함해 4곡을 공연했으며 응원단 동아리 'V.I.C.'는 인트로를 포함해 4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찬조 공연으로는 상명대의 댄스부 '토네이도'가 뉴진스의 어텐션을 포함해 4곡의 무대를 했다. 이튿날의 마지막 무대로는 저스디스와 쿠기의 무대로 학생들의 많은 환호를 얻었다. 대동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7일에는 학과 대항전과 '서일대 최고의 끈을 찾아라' 본선으로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무대로는 10CM와 다비치의 무대가 있어 늦은 밤까지 학생들이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대동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했다. 유명인의 무대를 보기 위해 새치기하며 매너를 지키지 않는 관객들이 많았으며, 축제를 즐기며 생긴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교내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생겨났다. 축제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같이 축제를 즐기는 다른 사람들과 준비를 하며 정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3일간의 대동제는 학생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많은 행사가 다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줄 수 있길 바란다.

[이하 용마대동제를 시작하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남긴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애국 서일 제1대 화양연화 중앙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예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있던 서일대학교의 많은 행사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38대 총학생회를 대신하여 구성된 자치 기구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학우분들께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고자 이렇게 제48회 용마 대동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의 첫 대면 축제라는 뜻깊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도 서툰 부분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대동제가 학우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있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고, 더 나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보다 정겨운 서일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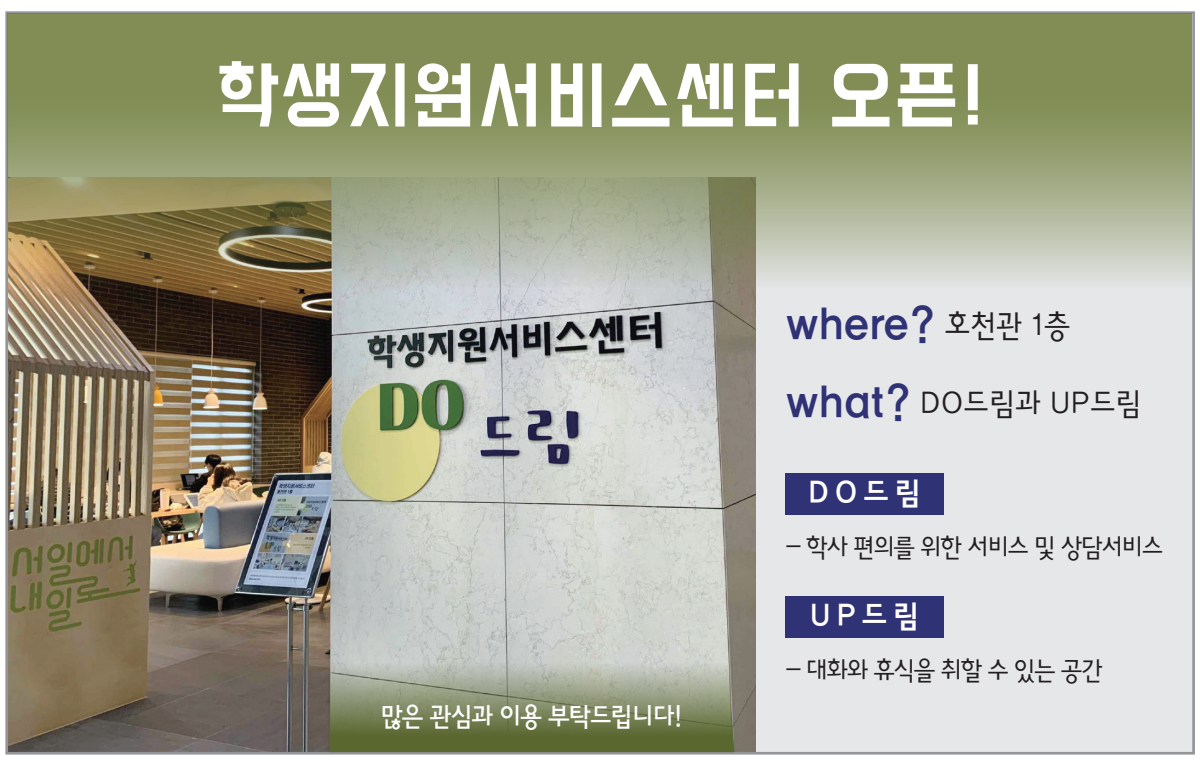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꿈은 우리 삶을 활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가슴을 채우게 합니다. 이런 열정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저희,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학우 여러분에게 용마 대동제가 본인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하나의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진행되는 3일간 중앙비상대책위원회 및 축제준비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동아리연합회 집부진, 학생지원처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학우들의, 학우들에 의한, 학우들을 위한 제48회 용마 대동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장해언 기자 haeeon0416@gmail.com

허승주 기자 rosaho1016@gmail.com



Contents

1 종합	면	제48회 용마대동제
2 보도	면	용마대동제 비하인드
3 보도	면	3) 지구를 위협하는 이상기후
7 특집	면	학생상담센터 소개
8 인터뷰	면	영어야 놀자, c.c.c.

알 려 드 립 니 다

• **11월 3일**
: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 **11월 17일**
: 학기개시(78일, 일반휴학신청기간 종료)

• **11월 29일**
: 학기개시(90일)

보도기사

용마대동제 비하인드

학생들을 위해 힘들어도 웃으면서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대학 축제인 용마 대동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 부스와 무대가 진행되었다. 학과 부스로는 비즈니스 일본어과, 생명화학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유아교육학과, 산업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세무회계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간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패션산업학과가 참여하였으며 자치 기구 부스로는 대의원회와 동아리연합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였다. 각 학과 부스들은 학과 전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우리 대학 학우들의 재미를 더욱 고취했다.



▲ 축제를 즐기기 위해 부스 앞에 모인 학생들

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도 축제의 재미 요소였다. 또한, 프로그램으로는 '비대위를 이겨라', '나는 솔로', '서일대 최고의 꾼을 찾아라', '당신의 선택은?', '학과 대항전', '도전! 참여왕!'이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부스 및 체험 행사, 공연은 우리 대학 학우들의 축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완벽했다.

이번 축제 부스를 운영한 대의원회 감사부 차장 윤다해는 "우리 대의원회는 이번에 무료로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자치기구인만큼 학생들을 위해 부스를 운영하였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였고, 저희가 준비한 게임도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대의원회를 알릴 수 있어 그것 역시도 축제하며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 축제에 참여한 한예빈 학생은 "부스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서최꾼 예선 시작 전에 우연히 MC분께 연극 티켓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 더 기뻤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시험이 끝나면 받은 연극 티켓으로 데이트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하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제 기획 소감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6월 21일부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박태현입니다. 학우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율이 30퍼센트가 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출되었습니다. 처음 비상대책위원회 5인이 뽑히고 축제를 기획할 때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모두가 조용하게 학교만 다니고 교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획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급박하게 준비했음에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씩 아는 정보를 모아주시고 엔터테인먼트와의 미팅을 거치며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가 3년 만에 열린 축제임에도 학우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거나 주차장, 편의시설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여 학우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저의 부족함으로 축제에서 아쉬움을 느끼셨더라도 같이 축제를 진행해준 저를 제외한 많은 분에게는 고생했다고 격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주인은 학교 구성원 모두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서 학생대표를 뽑지 않는다면 학생복지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때 투표를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학생대표를 학우분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원 기자 easycircl2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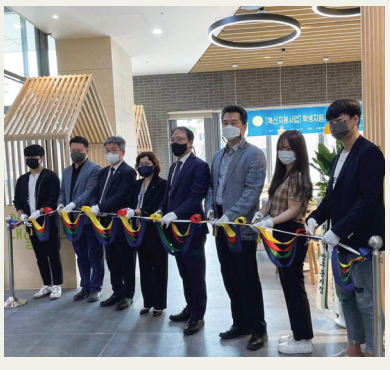
기획보도 1

학생지원서비스센터 개소식

학생을 위한 힐링 공간 DO드림과 UP드림 오픈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15일 호천관에서 학생지원서비스센터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 당일 행사에는 김영철 총장과 보직처장을 비롯해 재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학생지원서비스센터는 호천관 1층에 있으며, 학사 편의를 위한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DO드림과 대화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UP드림으로 구성됐다.



▲ 학생지원서비스센터 개소식

특히 DO드림은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스크탑이 구비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학습공간이다. UP드림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재학생 대표는 "학생을 위한 휴식과 정보 검색 공간이 생겨 기쁘다"라며 "특히나 호천관 1층에 센터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총장은 "DO 드림과 UP 드림은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편히 이용할 만한 시설들을 늘려가고 있다. 학생서비스지원센터은 학생들의 발걸음이 많은 호천관 1층 출입구 앞에 있는 만큼 앞으로 다른 시설들보다 이용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내의 모든 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새로움에 낯설어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학생들은 시설을 이용함에 부담 갖지 않고 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허승주 기자 rosaho1016@gmail.com

기획보도 2

우리 대학 학사구조 개편

변경된 학사구조 미리 알아두자!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새로운 학사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몇 학과들은 학과명 또한 바뀌게 된다.

먼저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으로 나누어졌던 계열이 IT융합학부, 휴먼케어학부, 글로벌외국어학부, 경영사회학부, 디자인학부, 미디어예술학부로 재편성된다.

세부적으로 IT융합학부에는 컴퓨터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AI융합콘텐츠학과가 배정되어 있으며, 스마트공학부에는 건축과, 생명화학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휴먼케어학부에는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 사회복지학과, 레저스포츠학과가 배정된다. 이어 글로벌외국어학부에는 비즈니스영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 비즈니스중국어과, 경영사회학부에는 스마트경영학과, 자산법률학과, 미디어출판학과, 세무회계학과가 배정되며 디자인학부에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생활가구디자인학과, VMD&전시디자인학과가 배정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예술학부에는 영화방송예술공연학과, 웹툰스토리텔링학과가 배정된다.



▲ 변경된 홈페이지 학과 소개

또한 여러 학과들의 학과 명칭이 변경되었다. 스마트승강기학과는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로, 중국어문화학과는 비즈니스중국어과로, 산업경영학과는 스마트경영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된다.

새로운 학사구조에 맞게 바뀐 교육 프로세스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이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

김진희 기자 rhdtka9@gmail.com

심층보도

우리의 삶을 실제로 위협하는 기후 위기

이상기후로 몸살 앓는 지구촌

최근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폭염,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나 폭설,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전 지구적인 심각한 재난이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로 잡은 이상기후, 도대체 왜 발생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리즈 순서

1) 생활 필수 요소인 물의 부족
2) 쓰레기로 넘치는 매립지, 쓰레기 대란
3) 지구를 위협하는 이상기후
4)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방안

서울이 충격을 받았다. 2022년 여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수해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웠다. 기후 위기에 무관심했거나 부정했던 이들도 이번 사태로 문제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8월 8일, 서울의 강수량은 381.5㎜였다. 서울에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기상관측 사상 최대치였다. 여기에 배수 관리 미비 등 행정 결함이 더해지면서 서울은 극심한 호우 피해를 보았다. 기상청도 '역대급 폭우'라 할 만큼 서울에서는 그야말로 '폭포비'라고 불릴 만큼 비가 내려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되었고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올여름 장마가 7월 27일쯤 끝날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완전히 빗나갔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온다'라는 오랜 법칙도 깨진 지 오래다. 점점 더 심해지는 예측 불가의 날씨 변동이 우리 일상을 습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의 이상 고온과 올해 봄까지 이어진 가뭄, 여름엔 장마와 폭염, 그리고 가을장마 등 이렇게 1년 내내 우리나라는 기후재해의 영향 아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한반도에 현실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실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다. 인도에서는 3월부터 때 이른 폭염이 시작되어 몬순 비가 시작된 6월 초까지 이어졌다. 유럽과 미국 서부지역에서도 5월부터 폭염이 시작되었고 하지를 전후해서는 40도를 넘어서는 초고온 상황이 넓은 지역으로



▲ 물에 잠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합 뉴스 제공]

확대되었다. 폭염에 극심한 가뭄까지 더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불도 발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키스탄 등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서울 수해가 발생하기 20여 일 전인 7월 12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발표됐다. 2021년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021 지구대기감시 보고서'를 통해 충남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대치인 423.1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2.3ppm 늘어난 414.7ppm을 기록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문제로까지 광범위해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도시화·산업화·정보화로 복잡해진 사회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적 재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세계 온실가스 농도도 최고치에 도달했다. 2020년 기준 이산화탄소 수준은 산업화 이전인 1750년 대비 149%를 기록했다. 메탄과 이산화질소는 각각 262%, 123%로 최대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는 기후변화를 불러오는 핵심 물질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사회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이상기후의 역습은 이미 시작됐다. 기상재해뿐 아니라 작물 공급량 감소로 세계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년 전만 해도 기후 위기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의 이상기후 기록은 한반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기후 재난이 언제 터져도 이상한 것이 없음을 말해준다. 부디 2022년 서울 수해를 기억해 훗날 다가올 해일을 막을 방파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인지예 기자 alsrn8963@naver.com

학생의 목소리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받는 사람: 컴퓨터전자공학과 19학번 홍성원

성원이형, 우리 우정 끝까지 가자!

– 보내는 사람: 컴퓨터전자공학과 19학번 서태지

받는 사람: 우리 대학 재학생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모두 파이팅합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 보내는 사람: 생명화학공학과 18학번 김대한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INTERVIEW

대동제, 추억할만한 순간은?



▲ 식품영양학과 21학번 양우성

코로나19로 누릴 수 없던 여러 가지 것 중 아무래도 축제가 가장 아쉬움이 컸다. 대학생의 로망은 바로 축제이니까 말이다. 대동제에서 추억할만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스였다. 직접 운영하는 것만큼 더 기억에 남는 건 없을 테니 말이다. 특히 우리 대의원회는 무료로 부스를 해서 더 그런 것도 같다. 나는 부스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이었는데, 사실 좀 어색할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 외로 다들 잘 참여해줘서 나도 덩달아 신났던 것 같다.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이러한 축제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내년에도 올해처럼만, 올해처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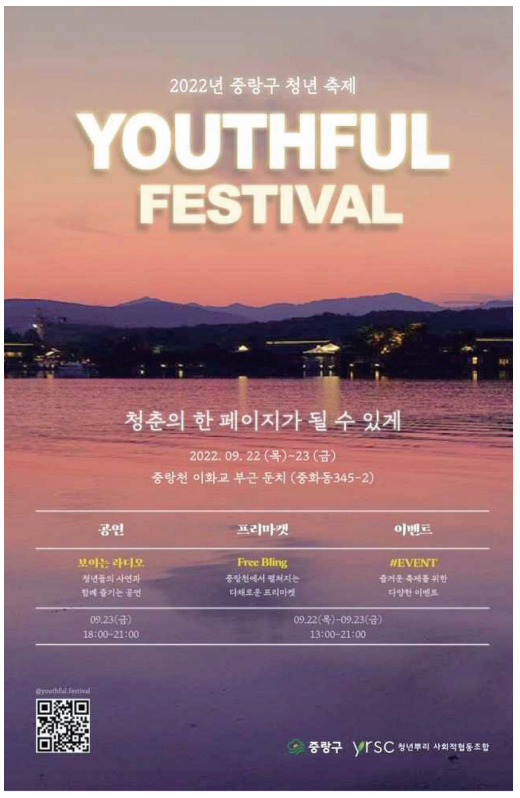
지역사회

중랑구 중랑 청년축제 개최

상으로 되돌아온 축제의 계절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랑천 이화교 둔치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2022 중랑 청년축제가 개최되었다. 중랑 청년축제는 '청년이 만드는 청년축제'로 지역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축제기획, 홍보단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오프라인 축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랑구는 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청년, 주민들이 축제를 즐기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 청년 정책과 활동을 공유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2022 중랑 청년축제'에서는 중랑구 청년네트워크와 비기술 청년창업자 지원사업,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2022 청년 정책 거버넌스 특화 사업 등 구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소개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홍보 부스가 진행되었다. 청년 프리마켓 부스에서는 14개의 팀이 참여해 선보이는 꽃다발과 생활용품, 감성엽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친환경 향수, 빈티지 소품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보이는 라디오·공연 '청춘을 청춘처럼'을 통해 미리 신청 받은 사연 소개와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



▲ 2022 중랑 청년축제의 포스터

도 1년 뒤 나에게 엽서를 보내는 '느린 우체통'과 청춘 기록 포토존과 비즈반지 만들기, 미술심리상담 체험, 원데이 클래스 키트 및 스탠바이 굿즈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들로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지친 청년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에서 활기를 되찾고 위로와 공감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지원사업들을 추진해가겠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멈춰있던 대학 축제와 활동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우리 대학도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48회 용마대동제를 개최하였다. 3년 만에 재개된 축제인 만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축제가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코로나19와 학업으로 지쳐있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부스와 동아리 공연뿐만 아니라 학과 대항전 등을 통해 매일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장해언 기자 haeeon0416@gmail.com
김진희 기자 rhdtka9@gmail.com

서일소식

우리 대학–노원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지역 청년을 위한 진로취업 협약



▲ 진로취업 업무협약 체결 관련 기념촬영

우리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9월 14일 노원문화재단과 지역 청년에 대한 진로 취업 지원 통합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청년 진로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원문화재단의 산하 도서관인 노원구립도서관은 우리 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진로 취업 상담, 입사지원서 첨삭, 면접 컨설팅, K-디지털 직업훈련 연계,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 다양한 취업 활동을 우리 대학 일자리플러스본부와 함께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의 지역 청년 통합상담서비스를 상시 안내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노원구 소재 지역 청년의 진로지도 및 취업 컨설팅 통합 상담뿐만 아니라 노원구립도서관 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노원구의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서관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해 지역 청년의 진로 취업을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협약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원스톱 진로 취업 지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지역 청년의 꿈과 우리 대학의 진로 취업 지원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신태희 기자 tlsxogml03@gmail.com

학과 STORY

정보통신공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인 양성



▲ IPACT 2022 국내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 IT 융합학부 계열 학과 중 하나인 정보통신공학과는 1993년 전자통신과로 개설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과 IT 융합 시대에 맞는 정보통신 기술 이론 및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을 꾸준히 배양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관련 네트워크, 정보보안, 통신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IT 융합기술 등이 있다. 주요 사용 프로그램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VMware Workstation, 다중 작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체제인 리눅스, 데이터를 정리하는 ISQL 등이 있으며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무적 지식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실무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론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리눅스 마스터 등이 있다.

학과 내에서는 SU대학일자리본부를 통한 진로탐색 및 진로캠프 프로그램, 대내외 공모전과 경진대회 참여 경험을 할 수 있는 벤처창업동아리 운영, IoT 특강 등을 운영해 다채로운 경험과 전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학생지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학과의 전공심화과정, 일반과정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올해 6월 국내 등재지 학회지 IPACT의 2022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기도 하였다.

정보통신공학과는 3년제로 졸업 후에는 공공기관, 방송국, 네트워크 및 서버 시스템 개발자, 정보보안 관련 기업으로 진출하게 되며 학과에서 운영하는 전공심화 교육과정 1년을 더 이수하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윤이담 기자 nooyuneo.o@gmail.com

사 설

용마대동제, 추억할만한 순간들이 되었길

지난 10월, 우리 대학에서는 용마대동제가 진행됐다. 행사를 진행해야 했을 총학생회의 부재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 대학 학생들은 힘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준비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진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축제가 진행되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용마대동제는 각 학과와 자치기구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그 중 학과 전공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한 체험 부스도 꽤 있었다. 이런 부스의 경우,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전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뜻깊은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또, 다른 부스보다 더 개성을 보이며 부스 방문자에게 단순한 부스 체험이 아닌 그 학과를 체험하는 기분을 낼 수 있게 해줬다.

학생들의 가장 많은 흥미를 끈 건 공연이었다. 작년에도 연예인 공연이 진행되었었지만, 입장에 제한이 있고 학생들의 참가가 불가하고 관람만 할 수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인원수 제한 등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무대도 준비되어 있어 코로나19 전의 축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의 용마대동제가 힘든 시간을 버텨낸 학생들에게 위로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릴 힘이 되어준 시간이었길 바란다.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맞이하며 생기를 되찾은 학생들처럼 캠퍼스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올해 축제뿐만 아니라 학과별 견학, MT 등의 활동도 시작하며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총학생회가 없으므로 인해 축제 또한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힘을 합했기 때문에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 느꼈길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우리 대학과 학생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캠퍼스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칼럼

코로나 학번의 졸업

건축과 임은영 교수



COVID-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에 입학한 일명 코로나 학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인 나는 학생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20학번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열정을 다하여 교단에 서고 있지만, 비대면 강의 때 제대로 배웠을까, 학교생활에 아쉬움이 크진 않을까 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첫해의 기억은 생생하다. 3학년 수업은 나름 괜찮았다. 학교에 나오는 번거로움과 크리틱해주시는 교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서였을까,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즐기는 듯 잘 적응해주었다. 또 어렵게 학교에서 크리틱을 진행하면, 너무나 반가워하며 들떠 했었다. 마치 아주 재미난 특강이나 field trip에 나온 친구들처럼 왁자지껄한 걸 보니 학생들도 학교 강의실에서의 수업이 그리웠었나 하며 지레짐작했었다.

문제는 1학년이었다. 건축과는 조별 과제, 실습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설계실에 발도 못 들인 채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서 대면 수업의 비중이 늘어났기에 희망이 보이는 듯했으나 숨 막히던 첫 수업 분위기를 잊지 못한다. 학생들을 오프라인 환경에 세워놓고 조별 과제를 진행하라 하니 서로 인터넷상 인물을 만난 듯하여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우려도 잠시였다.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빠르게 비대면 문화에 적응해 나갔고 그 모습은 꽤 생경했다. 솔직히 말해 감동했다.

그렇게 걱정 많던 20학번이 이제 졸업반이 되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 종종 궁금하다. 힘들고 아쉬웠던 기억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학기에 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것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다.

혹여 자신의 진가를 아직 발휘하지 못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며 동기,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들과 관계를 다져보면 어떨까 싶다.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서일대학교와의 인연이 긴 인생의 시발점이자 튼튼한 자양분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본다.

학생칼럼

영화를 대하는 나의 생각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1학년 한동준



영화는 기본적으로 눈속임이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은 사실 멈춰있는 사진이 1초에 24장씩 빠르게 움직여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영화를 대하는 태도는 환상에 가까웠다. 영화를 환상으로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별과 상실, 인간관계의 피곤함 등 사소한 현실의 아픔들이 있고, 크게는 세월호, 코로나와 같이 비극적인 일들도 있다. 나의 목표는 영화를 보는 순간만이라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말을 건네며 환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생각이 바뀌었다. 현실은 생각보다 질서정연하지 않고 인과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서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서사를 주제라는 짧은 문장으로 환원시켜 그 영화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듯 영화도 한 가지 주제나 문장으로 쉽게 정의되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때문에, 나의 영화에서는 서사에 기댄 이야기를 꾸며내고 싶지 않다. 이게 내가 지금 영화를 대하는 태도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다르다.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예술에서도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무언가가 우월하고 또 어떤 것은 열등한 사다리 구조가 아니라 넓은 그물망이 예술에 적합한 형태라고 믿고 있기에 나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에 도전해 일종의 '변이'가 되어보려고 한다. 어떠한 생물이 세계에 적응하고 살아남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미래에 어떤 선택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서일만평

이 맛에 대학교 다니지

그림 지현



사회문화

대학 학식 가격 인상

학식 가격 인상으로 인한 대학 내 밀키트 도입



▲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밀키트가 도입된 환경

최근 급등하고 있는 학식 가격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싸게 먹을 수 있어서'라는 이유로 학식으로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이도 옛말이다. 타 대학 커뮤니티에서 한 학생이 "학교 주변 5,000원 이하로 끼니 해결할 수 있는 곳 추천 부탁드린다"라며 "식비를 아껴야 하는데 학식은 가격이 인상된다고 들었다. 도와달라"라고 익명의 글을 게시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학식 가격이 부담가는 가운데, 대학교에서는 학식 가격을 기존보다 500 ~ 1,0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값을 인상하여 학식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0일부터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또, 자동판매기에선 간식과 식사류 음식 10여 종을 판매한다. 하지만 한 서울대생은 "저렴한 학식 가격을 다 올려놓고 간편식 밀키트를 사 먹으라 하니 화가 난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전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교 홍학관 2층에 위치하는 학생 식당에는 최근 '핵밥'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입점하였다. '핵밥'의 가격은 육회덮밥 8,900원, 생연어 덮밥 12,900원 등으로 학식으로써 학생들에게 싸게 느껴지는 가격은 아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는 선배들이 기부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돈의 부담 앞에서 본인들의 식사를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학식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

김다연 기자 dydh0131@gmail.com

경 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혜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 중에서도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30%이하인 만 15~39세 생계수습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 조건으로는 가입 기간 내 근로·사업소득이 지속되며 3년 만기 후 탈수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중복참여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공제금(매월 10만원)과 근로소득 45%가 지원된다. 또한 가입 수 3년 유지 시 총 1,440만 원이 적립된다.

신청 방법은 우선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자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그 뒤,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에게 결정 통보를 하고 신청자는 하나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에서 11월 중 매월 1~18일 경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해 기자 dohae1336@gmail.com



특집 1

학생들을 위한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

가벼운 발걸음으로 상담에 참여하기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의 풍요로운 대학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잘 적응하며 다닐 수 있도록 심리적인 것들을 지원하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취업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곳이다. 재학생과 휴학생 모두 상관없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실 위치는 호천관 403호이다.



▲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 내부 모습

학생상담센터 신청은 우리 대학 학생성공관리시스템에서 개인 상담과 개인 심리 및 진로검사 중 선택하여 상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개인상담은 전문상담사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상담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어 개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심리검사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적성 또는 흥미, 진로유형, 성격, 심리적 건강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을 더 정확히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심리검사해석은 전문상담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제공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 상담으로 이어진다. 모든 심리검사는 학기 중 상시 무료로 실시되고 신청 접수 완료 후 검사 실시 일자가 확정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 해석'은 추후 별도로 해석 상담 일자를 확정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심리검사는 최대 6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다수 선택 시에는 검사별로 개별 신청 처리가 된다.

상담은 주 1회에 60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의 횟수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8~10회까지 가능하다. 대면, 비대면(유선 또는 ZOOM 등) 중에 편한 방식으로 상담 선택이 가능하다. 상담 가능 시간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정된 상담 일시는 개별적으로 센터에서 연락을 준다. 센터 이용은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사이 점심시간인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제외된다.

학생상담센터 심리검사는 심리영역, 진로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심리영역은 1. MBTI – 16가지 성격 유형에서 나의 성격 유형은 무엇일까?, 2. MMPI-2 – 심리적 부적응을 파악하여 나의 성격과 행동 경향성 파악, 3. TCI –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영향으로 인한 나의 사고, 감정, 행동 평가, 4. NEO – 타고난 성격 5가지를 파악하여 나의 정서, 행동, 관계 평가, 5. K-IIP – 내가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6. CST – 나의 성격적 강점을 측정하여 자기이해 및 자기계발 정보 제공, 7. SCT – 미완성된 문장에 나의 이야기를 추가하기, 8. HTP – 집, 나무 사람을 그리며 나의 경험 이해, 9. KFD – 가족 모습을 그리며 가족에 대한 이해 평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영역은 1. CID – 심리적 특성이 디자인 잠재능력에 미치는 영향 확인 및 능력 개발, 2. CTI –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정적 사고 측정 및 개선 정보제공, 3. HOLLAND – 진로와 관련된 개인 흥미영역을 탐색하여 진로결정의 정보제공, 4. STRONG – 개인 흥미 유형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 업무 분야 정보제공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 혁신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최자인 상담사는 "지난날, 상담했던 학생들 중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를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상담을 통해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과 목소리 톤에 좋아지는 것이 드러나 기쁘다"라며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가 더욱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찾아오고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 학생상담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큰 문제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고민이어도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바란다"라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김도희 기자 rpt6dk@gmail.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일대 학보사
연락처: 02-490-7567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특집 2

용마 대동제 이후 아쉬움을 달래줄 볼거리 추천

하반기에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 줄 영화, 전시회

지난 10월 7일, 우리 대학 용마 대동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즐거웠던 용마 대동제의 아쉬움을 달래줄 볼거리로 11월에 볼 수 있는 영화와 전시회를 추천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소지섭, 김윤진, 나나, 최광일 주연의 '자백'이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호텔로 간 유민호(소지섭)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다. 정신을 차려보니 함께 있던 김세희(나나)가 죽어있고, 안에서 잠긴 방 안에서는 그와 김세희를 제외한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순식간에 밀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유민호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살인 용의자로 낙인찍히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몰린 유민호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 변호사 양신애(김윤진)를 찾는다. 유죄도 무죄로 탈바꿈시키는 변호사 양신애는 이번에도 이기는 싸움을 위해 유민호가 호텔로 걸어 들어가던 첫 순간부터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눈 내리는 깊은 산속의 별장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앤 해서웨이, 제레미 스토롱 주연의 '아마겟돈 타임'이다. 자유로운 아티스트를 꿈꾸는 폴에게 아빠와 엄마, 형은 너무 엄격하기만 하다. 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다. 학교에서는 단짝 친구, 죠니만이 마음을 알아주는데, 어른들은 죠니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라고 말한다. 폴은 죠니와 답답한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로 갈 계획을 하는데, 한 시절의 끝에서 자신의 세상을 지키고 싶었던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에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인 그래픽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그러면, 거기'이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러면, 거기' 전시회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장 줄리앙의 최신작을 비롯한 회화, 스케치북,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채롭고 풍성하게 구성된 장 줄리앙의 예술 세계를 볼 수 있다. 또한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 전시실에서 5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람할 수 있는 에바 알머슨의 '에바 알머슨' 전시회이다. '에바 알머슨'에서는 에바 알머슨의 2022년 신작과 에바 알머슨의 작품 세계관을 볼 수 있다.



▲ 장 줄리앙의 '그러면, 거기' 전시회 포스터

우리를 들뜨게 했던 용마 대동제의 아쉬움을 영화와 전시회로 달랠 수 있길 희망한다. 모두가 11월에는 영화관이나 전시회장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쉬어가길 바란다.

김다연 기자 dydh013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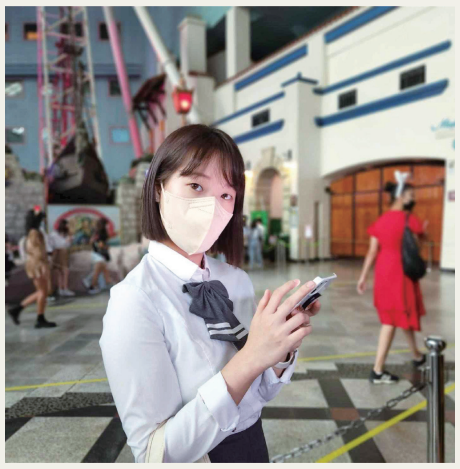
인터뷰 1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영어야 놀자'로!

비즈니스영어과 동아리 '영어야 놀자'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영어과 2학년 이지원입니다. 전공 동아리 '영어야 놀자'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야 놀자 동아리는 오픽 공인 영어 말하기 평가시험 준비를 통하여 영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영어말하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 비즈니스 영어과 동아리 '영어야 놀자' 회장 이지원

'영어야 놀자'에서 진행한 활동과 앞으로 예정된 활동들을 알려주세요.

영어야 놀자는 전공 동아리로서 주로 수업 시간에 활동했습니다.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동아리인 만큼 동아리 오픽 시험에 필요한 공부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픽 주제에 맞추어 개인별 문제 선정 및 스크립트 교정, 발음 교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 역시 오픽 시험 준비 위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야 놀자'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나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 위주로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천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나, 오픽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이나 친목, 전공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픽 시험을 준비하며 영어 말하기에 대해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동아리의 활동 목적인 오픽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영어야 놀자는 오픽 시험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인 만큼 좋은 성적만큼 더 좋은 목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어야 놀자'는 수업 시간에서는 미처 다 배우지 못하는 오픽에 대해 학우들끼리 탐구하고 서로 도와주며 같이 발전해나가는 동아리입니다. 전공 동아리인 것이 아쉽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해언 기자 haeeon0416@gmail.com

인터뷰 2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나의 첫 공동체

기독교 동아리 'ccc'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cc에서 부대표로 섬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21학번 김기연입니다.



▲ 기독교 동아리 'ccc'

ccc에서 진행한 활동과 앞으로 예정된 활동들을 알려 주세요.

ccc는 매주 진행되는 모임과 채플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가을엔 DT, 여름방학엔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여름수련회와 순캠프도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홈커밍데이와 금식수련회 등 다양한 C맨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ㅎㅎ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매 순간이 다 기억에 남지만 올해 여름수련회를 뽑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말로만 듣던 전국 규모의 첫 대면 행사였고 함께하는 시간동안 즐거움도, 감동도 많았던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무교인 사람도 동아리 가입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ccc는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물론 종교가 없는 친구, 성당이나 절에 다녔던 친구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부담은 덜어두고 얼마든지 오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또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도 여길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ccc를 "사랑 그 잡채"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저처럼 어딘가 자꾸 외롭고 공허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하면서 많은 위로와 채움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래요!

신태희 기자 tlsxogml03@gmail.com